

“전시실 걸으며 ‘숲 속의 숲’ 만나요”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특별전 제3부 ‘숲에서’ 개막...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 전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별전 ‘김병중 40년, 봄은 잠들지 않는다’의 제3부 전시 ‘숲에서’를 21일부터 개막한다고 밝혔다. 제3부 ‘숲에서’는 크기가 10미터인 김병중 화백의 대표작 ‘숲은 잠들지 않는다’를 포함, 1990년 이후 발표한 ‘숲에서’ 연작 26점이 대거 출품된다.

김 화백의 ‘숲에서’ 연작은 한국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닥판(다나무 섬유질에 직접 추출한 염료를 섞어 만든 그림 바탕)에 활달한 윤곽로 숲의 생명력을 작품에 녹여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로 인해 1995년에는 선(選)미술상을 수상하였고, 영국박물관은 동시대 한국화 분야에서 대표성을 인정해 그의 작품을 세 점 수집하는 등 당시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병중 생명의 노래-수유회개

김 화백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 ‘숲’은 그의 유년기를 위로해 준 넉넉한 품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가꿔온 자신만의 숲을 작품으로 완성하면서, 숲이 지닌 형태 대신 숲이 지닌 기운과 생명력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 12개 시·군에서 3~4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 전시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숲에서’ 전시에는 계남영의 ‘움직임’, 한애규의 ‘앉아있는 여인’, 김광진의 ‘길’ 등 전북도립미술관 대표 소장품 24점이 전시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김병중 화백의 작품은 제목 그대로 전시실의 숲이 되었고,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의 조각 작품들은 그 안에서 숲의 식구가 되어 주었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숲 속에 자리한 전원형 미술관이어서 이번 전시는 자연스럽게 ‘숲 속의 숲’이 전시 컨셉이다. 봄날에 숲을 산책하듯 편하게 전시실을 걸으면서 감상에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관람료는 없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진흥재단, 청소년 대상 무료 진행

교육부(장관 이주호)에서 인정한 ‘교육기부 우수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수련·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신청 학교와 기관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 지원형’과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각 학교 및 기관의 상황에 맞게 신청 가능



하고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지난해 서울 가락초등학교, 전주 화정중학교, /무주=전문선 기자

경남 창원고등학교, 제주 중문중학교 등 전국 26개교 2천6백여 명의 청소년이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특히, 전년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흥미 유발이 가능한 타격용 기구를 활용한 ‘발차기 체험’과 음악과 함께 태권도를 즐기는 ‘릴링태권체조’, 전자호구를 활용한 ‘겨루기 체험’과 태권도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일까지 더욱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태권도 매력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다”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호원대-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 K-컬처테크융합원(원장 최부현)은 지난 17일 서울 호원아트홀에서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의봉 부총장(산학협력단장 겸직), 최부현 원장, 조한민 교수와 박성미 대표, 서훈 감독, 서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산업 분야(영화음악 콘서트 개최 등)의 사업 및 공동연구 개발, △공연 관련 실습 기자재의 공동 활용, △영화음악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호원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현장교육 및 취업관련 협조,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K-컬처테크융합원은 호원대의 전략 육성분야인 문화예술콘텐츠를 중심으로 복지·보건 및 기술융합 관련 연구와 사업들을 통합·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2년 말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예술대학의 공연미디어학부, 실용음악 /장은성 기자

학부, K-POP학부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인력양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의봉 부총장은 “정통 클래식은 물론 오페라, 뮤지컬, 국악, 독특한 레퍼토리 공연을 해오면서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온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력을 체결해 기쁘다”며 “지역에 위치하지만 예술분야 강소대학으로서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예술분야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 우리대학이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미 대표는 “호원대학교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재들과의 교류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학의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호협력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공간 ‘소소담’ 기획전시 100회 맞아

31일까지 김명숙 작가 서각·한국화 작품 등 20여점 전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 소소담(談) 갤러리가 기획전시 100회를 맞았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문화공간 ‘소소담(談)’은 매달 새로운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 문화예술 대중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획전시 상시 운영에 따라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100회를 맞이한 갤러리 소소담(談)은 ‘마음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김명숙 작가의 서각 및 한국화 작품 등 20여 점이 전시된다.

김명숙 작가는 한국화 작가로서 첫 개인전을 여는 새내기 작가로 “첫 개인전을 이렇게 의미있는 시기에 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갤러리 ‘소소담’이 나와 같은 신진 작가에게도 좋은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문화공간 소소담이 어 느덧 100회를 맞아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100회 전시 기쁨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해 생활 속 문화 체감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명숙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31일까지 센터 1층 소소담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54-381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 디지털 융복합 관광사업 협업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가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7일 ‘전라북도 디지털 융복합 관광사업 협업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융복합 관광사업은 관광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협업팀을 선정해 우리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프로젝션 맵핑 등을 결합한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이날 시연회는 도내 관광기업들의 디지털 전

환에 따른 성과 공유 및 관광디지털 보유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진행됐다.

박금숙 단장이 인형연구소의 박금숙 대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시연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전북의 디지털 융복합 관광산업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디지털 전환 관광콘텐츠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재단과 관광기업지원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 미술교육과 교수 작품전시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작품전시회가 오는 4월 14일까지 황학당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미술교육과 박진희(조소), 서유미(서양화), 장지성(한국화), 장동호(미술교육) 전임교원 4명이 참여해 미술 작품 23점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다른 어느 해보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좋은 작품으로 재학생, 예술가, 지역주민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교수 작품전시회가 열리는 황학당 지하 전시실은 지난해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활발한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새롭게 구축됐다.

박병춘 총장은 “미술교육과 교수님들이 모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따스한 봄날의 기운을 받아 미술 문화의 감성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